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인 공영우
주간 이석우
편집장 김중배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제1044호 〈주간〉 1994년 5월 2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등록금협상 사실상 마무리

발전계획안 등 논의위한 '3자협의체' 구성 합의

94년 등록금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관련기사 3면)

【서울】21년달 24일에 있었던 협상을 끝으로 올해 등록금협상이 타결되었다.

올해 합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재단 공개와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학생참여보장을 들수 있다.

학교측은 교수, 학생, 직원으로 이루어진 3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희발전 5개년 계획과 대학 평가 인정제 준비, 교과과정 개편, 예산 편성, 재단의 투자, 등록금 책정등에 있어서 학생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안에 공간 증축에 관한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켜 이를 총장이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자주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재단공개에 관해서 학교측은 올해 5월 결산회계가 끝나는 대로 재단법인회계, 병원회계, 학교회계를 6월 이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금 인상률은 이미 납부된 등록금 액수와 같이 인문사회계열 15%, 기타계열 14%로 확정되었다. 학교와 학생측은 이미 예산안이 학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예년까지의 등록금 협상이 실질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학자주는 예산안이 확정된 상태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낮출 경우 그만큼의 재원을 다른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므로 결국 복지예산의 삭감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낮추었지만 해마다 등록금 의존율은 증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수원】한달 반을 끌어온 등록금 협상이 지난 27일 학교측과 학생측이 '94년 등록금 확정, 전년도 합의서 전면이행, 경희 종합발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학교, 학생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학교측과 학생측은 그간 5차례의 대표자 협상과 10여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이번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는데 이번 등록금 합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예년에 비해 등록금 액수조정 논의 보다는 학교종합발전계획수립, 학생복지환경의 개선 등 복지여건확대의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금 책정에 있어 학교측의 인상율을 수용한 한편, 95년 등록금 책정시에는 학교, 학생이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책정하고 고지서는 협의후 발부하기로 하였으며 94년 등록금 책정에 대한 예결산서의 공개와 가정통신문의 발송은 빠른시일내에 실행하기로 하였다.

또 도서관의 완공, 교문및 대학문화거리 건설, 교양강의동 건설등 93년 합의서의 검검 부분은 91년 및 93년 합의서에 준용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단기적 경희 종합발전 계획안의 작성을 위해 학교와 학생은 교수 학생 직원이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3자협의체의 구성 이전까지 교수 학생 직원회에 학교당국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시간표 편성프로그램 개발

수원 자동화로 시간 대폭 단축

수원캠퍼스는 94년 2학기부터 국내 대학 중 최초로 강의 시간표 편성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수원캠퍼스 교무과는 학생들의 각 교과목에 대한 수강욕구를 충족시키고, 강의실 이용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합시간표의 작성방안을 고심하던 중 인공지능연구소의 정태충(공대 전산)교수팀에게 의뢰하여 시간표자동편성프로그램(TTS : TIME TABLE SCHEDULER)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시간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장점은 종전까지 한 달반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10일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가 희망하는 시간대에 강의를 할 수 있어 종합시간표가 나온 후 시간표가 정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강신청정정도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수강인원에 적절한 크기의 강의실을 배정하고 강의실 활용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어 약 1백%에 가까운 공간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교과, 수업거부·농성돌입

실습비 유용·교수자질 문제삼아

미술교육과 학생들이 실험실습비 집행과 교수자질 등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 아무개 교수(이하 이름과 관계없이 A교수라 함)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미교과는 지난 4월29일 오후 12시 사범대 504 강의실에서 2차 비상학생총회를 열어 찬성 86 반대 5기권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이같이 결정하고 미교과 사무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미교과 비상대회위원회(위원장 전형섭 서양화·4)는 27일 A교수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박재호 사범대 학장과 공영일 총장에게는 탄원서를 각각 보내, 28일 답변서를 받았으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고 △오전 10시에 비대위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박재호 사범대 학장)간의 회담이 예정되었으나 진상규명위에서 준비 미비를 이유로 회담을 연기, 12시에 예정된 2차 비상학생총회에서 수업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와 진상규명위는 오후 2시에 회담을 가졌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고, 학생들은 회담후 미교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러나 박재호 학장은 그러나 "10시에 회담을 갖기로 합의된 바가 없으며 오전 10시20분쯤 번종필 학생회장이 회담을 요청해와 교수들을 소집, 오후 2시에 회담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미교과 학생들은 이에 앞서 26일 1차 비상학생총회를 갖고 참석인원 1백6명 모두의 찬성으로 A교수의 퇴진을 결의한 바 있다.

95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교무처 문학분야 포함, 특기자 수능점수 기준 설정

교무처는 서울캠퍼스 본고사 실시, 문학분야 특별전형 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9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입시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학생선발기준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대학별 고사성적으로 하고 수원캠퍼스는 내신성적+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하는 것이다.

서울캠퍼스만 실시하는 대학별고사 과목은 인문계가 국어, 영어 두 과목이고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2 세 과목이다.

주요 입시일정은 특차의 경우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를 하며 12월 28일에 전형을 실시한다. 전기는 1월 3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월 13일에 전형, 실기고사는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우선 특차의 경우는 올해에 전학과에 걸쳐 실시했던 것을 법대·정경대(수능 인문계 전국석차 상위 5%이내), 공대(수능 자연계 전국 석차 상위 9%이내)는 모집정원의 20%이내, 의대(간호학과 제외), 한의대, 치대, 약대(수능 자연계 전국석차 상위 3%이내)는 모집정원의 40%이내로 선발하며 내신성적 40%+대학수학능력시험 60%를 반영한다.

또 전기모집은 올해와는 달리 계열교차지망은 허용하지 않으며 영문학과와 영어교육과에 한해 허용하던 과목별 가중치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2지망은 올해와 같이 실시하지 않는다.

특별전형은 올해부터 문학분야 특기자를 추가 선발하여 체육과 함께 두 분야로 하며 특기자 최저 학력기준은 체육은 수능시험 40점, 문학은 120점이다.

전기모집 전형요소별 반영점수는 다음과 같다.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1. 일반계(인문, 자연)

캠퍼스	계열(학과)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	면접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합 계
서울캠퍼스	인문,자연계	200점	150점	150점	/	/	500점
	사범영어교육과	200점	150점	100점	25점	25점	500점
수원캠퍼스	인문,자연계	200점	300점	본고사 실시하지 않음	/	/	500점

2. 예·체능계 : 수학능력시험 성적 20%반영

구 분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실기고사)	면접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합 계
예·체능학과	공학	200점	100점	200점	/	/	500점
	인문	200점	100점	200점	/	/	500점
	체육	200점	100점	200점	/	/	500점
사범대학미술교육과		200점	100점	150점	25점	25점	500점

노조, 임금협상 타결

4차실무교섭 총액 15.4% 인상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주요사안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4차 실무교섭까지의 사안별 진행사항을 보면 임금인상부분에서는 총액의 15.4%가 인상되었고 사무직, 기능직, 관리직, 환경직 등 정규직의 경우 11.6%, 일용직, 사무보조직 등 비정규임시직은 19.2%의 인상률을 각각 보였다. 또 사무직, 기능직, 관리직 등에 지급되는 보직수당은 동결되었다.

한편 단체협약 부분의 중요사항을 보면 자녀학자금 1인지급, 환경직 정년을 이전의 54세에서 55세로 연장, 직원인사위원회 설치 정원유지 및 고용안정, 명예퇴직제 실시, 퇴직위로금제 개선, 인전보전위원회 설치, 인사제도, 복지제도 등을 다루는 제도개선 연구위원회 설치, 급여이체를 위한 주거래은행 증설 등이다.

교시탑

학생 공동참여 아쉬워

▼영남일대에 널리 퍼진 실화와도 같은 정조득살설에 대한 허구적 장편소설이 일파전에 나왔었다.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고증을 허구를 통해서 접근하려한 이 소설의 기본 배경은 당쟁이라는 비극적 역사이다. 이백여년에 걸친 윤곡학파(노론)와 퇴계학파(남인)의 갈등은 결국 피로 씻는 당쟁사의 철학적 기반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93년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선거 후 학내에는 크게 두 기류가 형성되어 왔다. 그것은 지난 2월 1일 전국농민대회에서도 드러났고 바로 얼마전 전학대회에서도 표면화되어 온 공공연한 기류이다. 농민대회에서 우리학교는 학교를 대표하는 깃발이 돌이었고 그 깃발을 따르는 학생 또한 들이었다. 또 지난 3월 18일에는 '우리 농산물 지키기 자주 경희 운동 본부'와 동아리연합회의 신입생 환영주간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문리대 한학우가 대자보에서 지적했듯이 지난달 30일에는 총학생회의 메이데이사전 결의 대회 참가와 문리대 예비역 체육대회가 같은날 진행되었다. 요즈음은 모든 행사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때에 이런 아유에서건 연계되지 못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론과 남인의 대립은 처음에는 바람직하고도 사상적인 대립이었음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편가르기식의 맹목성을 띠었을 때 이미 철학적 사상으로서의 차이는 명분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입장의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것이 관점의 차이, 정신적 기반의 차이를 넘어설 때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감정적인 발로에서 계획된 모든 행위는 오늘을 사는 지성인의 바람직한 태도라 하기에는 너무 유치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전채연 記者〉

社告

詩 문예 현상 공모

9일 마감, 형식제한없이 3편이상

우리신문사는 개교 45주년과 창간 39주년을 기념하여 대학인들의 문예창작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詩 창작 능력의 질적 고양을 위해 '제5회 대학주보 詩 문예 현상공모'를 실시합니다.

▲응모기간 : 1994년 5월 9일까지
▲응모부문 : 시(원고량, 형식에 제한없이 3편이상)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원고제출처 : 본사 편집실 및 수원캠퍼스 편집실
▲심사 : 교내 전공교수 2인과 본사가 의뢰한 시인과 문학평론가 3인으로 하며, 심사위원장은 본사 주간교수로 하여 총 6인으로 구성, 심사한다.
▲입상작 발표 : 5월 16일자 대학주보 지면을 통해 발표
▲입상작 처리
1) 당선작 1편 : 상패 및 9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전액지급
2) 가작 2편 : 각 상패 및 2학기 장학금 30만원 지급
3) 입선작 3편 : 각각 소정의 상금 지급

—대학주보사—

1994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결정사항

학교당국은 1994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에 관하여 총학생회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총학생회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의 꾸준한 개선을 위하여 정부, 재단, 그리고 학교당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또한 우리대학은 새로운 국내·외의 교육환경에 직면하여 변화와 도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995학년도에는 대학종합평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학교당국의 의지가 하나로 뭉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 고통의 감내가 필요하며 학교당국은 간단없는 개혁과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구할 각오입니다.

Ⅰ. 등록금 인상에 관하여

1. 9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은 인문사회계열 15%, 기타계열 14%로 한다.
2. 각 단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생들의 요구안은 전폭 수용하고, 이의 재원은 93년도까지는 학교 총예산중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학교가 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3. 현재 공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환경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올해안에 공간 증축에 관한 해결방안을 확정하고 경희발전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켜 이를 총장이 책임지고 시행한다.

Ⅱ.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하여

1. 재단은 94년 5월 결산회계가 끝나는 대로 재단법인회계, 병원회계, 학교회계를 6월 이전에 공개한다.
2. 학교발전에 대한 교육 재정 확보를 위하여 국가, 사회, 재단, 학생의 책임인식을 공유하고 경희발전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재단의 투자, 등록금 문제등을 3자 협의체를 통해 결정한다.
3. 94학년도 건설가계정은 등록금 이외의 재원으로 지출한다.

Ⅲ. 경희발전을 위한 학내 민주적 운영을 위해

1. 교수, 직원, 학생의 대표로 3자 협의체를 학교가 주도하여 구성한다.
2. 3자 협의체는 경희발전 5개년 계획과 대학 평가 인정제 준비, 교과과정개편, 예산편성등 학내현안 문제를 논의한다.

Ⅳ. 경희학원의 실질적 개혁을 위하여

1. 교과과정, 교수채용, 강의평가에 있어 학생들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각 단대 요구안은 시행가능한 일정을 학생들과 논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경 희 대 학 교 서 울 캠 퍼 스